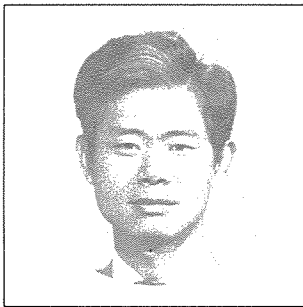


“國立自然史박물관 設立 시급하다”



李 相 泰

〈成均館大교수 · 植物學〉

自然史博物館(Natural History Museum)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자연사박물관이란 것이 애초에 없었고, 科學書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외국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두번쯤은 거대한 공룡의 골격 표본을 비롯하여, 수 많은 종류의 새, 짐승 등의 박제와 골격표본, 그리고 아름답고 희안하게 생긴 수 많은 조개, 나비 등을 전시해 놓은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한 기억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잊지 못할 경험을 통해서 대강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自然史博物館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수 많은 展示物 중에서 우습게도 조그만 꿀벌통의 기억이 생생하다. 유리창을 통해 꿀벌통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림으로만 보던 큰 여왕벌이 있고, 여왕벌이 낳은 알이 애벌레가 되고 이들을 유모벌이 먹이고, 일벌이 열심히 꿀을 날라오며, 이들이 벌집 위에서 이리저리 돌며 다른 벌들에게 意思傳達하는 모습을

꽤 오랜 시간을 재미있게 보면서 이것이 산 科學教育이로구나 하고 경탄하였다. 그 후 여러 곳의 크고 작은 자연사박물관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간직한 채 여러해가 지났다.

사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1989년 9월부터 1년간 영국의 런던자연사박물관(The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외 몇군데를 돌아 보면서, 이젠 희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무언가 해야겠다는 使命感(?)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막연했고, 글을 써서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할 해야했던 생각도 해 봤으나, 워낙에 글재주라곤 없어 결국 아무 한 것 없이 오늘에 이르고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자연사박물관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 금년 2월

9일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회장 조완규박사)를 발족하였다. 이를 계기로, 용기를 내어,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과 국내외의 실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쓴 적이 있고, 특히 작년 9월에 “韓國의 自然研究와 國立中央自然史博物館의 發展方向”이란 심포지움이 열려 그 발표내용이 인쇄되어 나왔으므로, 과거의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은 자연사박물관에서의 연구경험자 중 한 사람의 입장에서 순전히 필자의 생각대로 정리하고 싶다.

自然史 박물관이란?

우선 자연사박물관이 무엇인가 부터 나름대로의 定義를 내려 본다. 아마도 이에 대한 전문가가 본다면 혹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自然史博物館은 地球, 鑛物, 動物, 植物, 生態系 등과 같은 自然의 現在와 過去를 ‘展示’해 놓고 自然의 歷史(인류의 歷史와 같은 개념으로)에 대해서 教育하는 곳이다.

따라서 자연사박물관에서는 自然史에 관한 展示가 필수적이다. 自然(자연사도 포함한)에 대해서 실물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책으로만 교육을 한다면 진정한 자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험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가 잘 이해되고 오래 기억되는 것처럼, 다양한 자연 현상과 재료는 실제 육안으로 확인할 때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코끼리를 사진으로만 본 사람과 실제로 본 사람 중 누가 더 코끼리에 대해 잘 이해할 것인가는 두 말할 나위도 없는 일 아닌가?

런던자연사박물관에서 수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오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전시물을 그냥 훑어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 맞는 질문지를 들고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전시물 옆에 부착된 설명문을 읽고 다양한 내용이 담긴 컴퓨터를 두드리기도 하였고, 의심 나는 것들을 좀 더 알기 위해 구내 도서관을 찾았다. 게다가, 한번 보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1년 입장권을 사서 수시로 이곳을 찾는단다.

그리고 구내영화관에서는 자연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관계분야의 전문가가 나와 관람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또한 자연을 소재로 한 사진, 그림, 조각 등을 전시하기도 하고, 自然保護나 動物虐待禁止 등과 같은 캠페인에 관한 전시회도 열린다. 통계를 의하면 입장 인원수가 1년에 약 330만명이라 하니, 이들의 자연사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박물관은 원래 1753년 부터 大英博物館(British Museum)에 소속되었던 것인데 1881년에 현재의 독립건물로 옮겨졌다.

따라서 영국인들이 자연사박물관을 접한 것은 지금부터 약 240년전의 다윈, 토마스 헉슬리, 조지 벤담, 존 허치슨, ... 등 수 많은 세계적인 학자를 배출하고, 스티븐슨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켜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학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세계를 주름 잡은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왜 이같은 展示의 觀覽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 그림 대신 實物쯤 보았기로서니 科學教育이 정말 잘 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얼핏 생각해 보면 그까짓것 하고 누구나 일축해버리기 십상일 것 같으나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實物 및 實驗 教育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갖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효과이고, 이런 교육을 지속함으로 해서 자연에 대한 보다 깊은 關心을 갖게 하고 자연을 연구하려는 探究心을 불어 넣어 주며 研究할 수 있는 方法과 心性을 涵養하는 것이 이차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사박물관은 진정한 科學者를 養成하는데 있어 必須的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미술가가 되는데 있어, 어려서부터 미술관을 다니면서 많은 그림을 감상하고 미술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런 면은 음악, 연극, 체육, 문학, 고고학... 등 어느 학문이고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이같은 교육은 일반인에게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대중들이 자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과학자들은 더욱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쓰게 되며, 사회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쉽게 공통된 생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간단한 예로 水質汚染을 막기 위해 合成洗劑를 쓰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인다 했을 때, 生態系의 原理에 대하여 대중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혹자는 國民科學化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다수의 국민들이 자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들의 삶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 됨을 의미한다.

국민과학화는 국가의 장래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작게는 資源의 節約과 自然의 保存으로부터 크게는 새로운 機械나 物質의 發明 등을 통해 持續的인 國家 經濟成長을 가능케 하고 이런 일은 일시적인 정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國民科學化에 있어서 自然史博物館의 役割이 至大하다면 그 設立은 必然的이고 時急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自然史박물관의 기능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은 자연에 관한 교육에 있다는 것은 자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좀 다른 얘기, 즉 自然史博物館의 研究機能으로 화제를 바꿔보자.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하고 나면 얼른 전시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다. 또한 런던자연사박물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392명,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가 연750만 파운드(약100억원)나 된다면(The Cooperative Plan 참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자연사박물관의 건물에서 쉽게 들어 갈 수 있는 대부분의 면적은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연구실은 사람들이 가기 힘든 귀퉁이나 지하실, 또는 옥상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구에 많은 신경을 쓰는가?

人間은 自然의 一部分인 동시에 자연 속에서 자

연을 利用하여 生活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이해는 인류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에 관해 전시하고 교육하는 곳이 자연사박물관이라면, 그리고 연구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으며, 연구없이 지식의 축적이 있을 수 없다면, 이곳에서 자연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은 자연에 대해서 응용적인 면보다는, 비응용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자연에서 잘 이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應用科學에 관련된 여러 研究所가 있어 많은 연구를 하나, 아직 응용단계에까지 와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즉, 이용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대상 또는 단지 지식만을 더 해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로 이곳 자연사박물관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영국은 일찍이 세계적인 해상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세계 각처에서 각종 生物, 化石, 鑛物, 歷史的 遺物, ... 등을 蒐集해 왔다. 이 재료들은 연구와 이용의 대상이 되어 영국을 학문적 중심이 되게 했으며 경제적으로 세계의 최대강국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런던자연사박물관에서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金梅花屬(대부분의 종들이 한반도,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인도, 중동지역에 분포한다)의 植物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세계 곳곳에서 수집해온 식물표본들이 있음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 현재로는 우리나라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려 해도 우리나라 어느 대학이나 연구기관보다도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자연사박물관을 이용해야 할 실정이니 이것 또한 학문적 植民生活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學問的 自立과 國民的 自肯心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우리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세워 우리나라의 자연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주로 대학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의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극히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만약 외국학자들이 한국의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다면 현재로서는 자랑스럽게 안내할 곳이 없다. 대학의 植物標本室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제한된 인력, 시간, 연구분야 때문에) 韓半島의 식물을 채집해 표본을 소장하며 연구하는 國家機關은 아예 그림자도 없으니, 하물며 외국의 자연에 대해서는 언제 눈을 돌릴 수 있을지 정말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그리고 이같은 현실은 다른 분야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시점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설립의 필요성은 다시금 절실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제 觀光的(?) 意味에서의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이는 그 나라의 자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역사를 알기 위해 박물관을 찾듯이) 자연사박물관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현대 만약에 내놓을 만한 곳이 없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형편없는 나라라고 평가할 것이다.

어느 無識한 富者가 있다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집에 들여 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教養이나 知識 또는 文化生活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자가 주는 좋지 않은 인상 같은 것을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에게 준다면 우리의 자존심은 이를 허락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와 경쟁국인 동남아의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져있는 中國도 벌써 1950년대에 커다란 도시마다 自然史博物館을 만들어 놓았다. 또 외국의 國立公園을 가보면 입구에 그 공원의 자연을 소개하는 자연사박물관이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어느 국립공원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도 있는가? 현실은 우리의 科學文化 不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 한심스럽게 그지 없다.

자연사박물관의 설립의 당위성에는 위의 여러 가지와 관련은 되나 다소 구별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단순한 餘暇善用 내지는 精神純化의 기

능이 그것이다. 우리가 산이나 바다에 가서 자연을 보면서 도시생활에서 찌든 정신을 맑게 하듯이,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자연의 여러가지 신비스러운 전시물을 감상하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십억년 전에 살았던 엄청난 게 커다란 공룡의 뼈, 500년이 넘는 나무밀등의 나이테, 멋있게 날고 있는 모습을 한 학의 박제표본, ... 등을 쳐다보면서, 어떤 철학도는 시간과 생명에 대해서 명상할 수도 있고, 문학도들은 재미있는 과학 소설을 구상해 낼 수도 있을 것이며, 미술학도는 스케치를 하고, 각종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위한 소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 대학의 문이 좁아들고 입시에 낙방한 청소년이 늘면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타 문화공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사박물관도 이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가치관을 심어주는 등 건설적으로 소일할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시말해서 자연사박물관은 새로운 관광객자원겸 휴식처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結 語

이상 두서 없이 자연사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써 보았다. 이외에 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믿는다. 여지껏 없이도 잘 살아 왔는데, 한 두푼 드는 일 아니고 무슨 얘기냐고 반문할 경제인이나 정치가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國家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이 일은 기필코 그리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년만 존속하다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그만 뒤야할지를 모를 때,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는 격언도 있듯이 최선을 다 한다면 반드시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인 것이다.

피땀흘려 이룬경제 과소비로 무너진다